

Robert Vannoy , **구약 역사, 강의 15**

홍수 이야기(창 6-9)

E. 홍수 이야기

1. 홍수의 범위 2. 홍수 기간

우리는 홍수 이야기인 창세기 6-9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E. 아래에서 1. 즉 “홍수의 정도” 를 논의했습니다. 2. 우리가 선택한 곳은 “홍수 기간”이고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설명이 있습니다. 7장 11절에 보면, “노아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일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열었어요.” 그러므로 때는 노아의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십칠일이었더라. 창세기 8장 14절을 보면 둘째 달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다고 나옵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 둘째 달 27일에 땅 이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만큼 건조해졌습니다. 그러면 1년 + 10일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작가가 태양년을 말하고 있었나요, 아니면 태음년을 말했나요? 정확한 일수를 알고 싶다면 물론 우리는 태양년 시스템에 익숙합니다. 대부분의 고대 문화는 음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총 일수에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략 1년 정도입니다. 1년보다 열흘이 더 길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지난 수업에서 논의했듯이 이것은 일반적인 연간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습니다.

3. 홍수의 원인

3. 시트에 “홍수의 원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잠시 논의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이 6장 5절부터 8절까지에서 그 내용을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에서 멸하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새 나라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 이것은 인간의 사악함이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라는 매우 강력한 진술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곰곰히 생각해보면 최상급 표현들이 어떻게 쌓여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악의 강도는 컸다. 사람의 사악함이 컸습니다. 악의 내면성과 함께 악의 강도도 컸다.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였더라. 악의 포용성: 그것은 그의 마음의 *모든 상상입니다*. 악의 배타성: 그것은 *단지* 악일 뿐이었다. 그리고 악의 지속성은 하루 종일입니다. 제임스 왕은 “계속해서”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으로 히브리어로는 “하루 종일” 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강렬함, 내면성, 포괄성, 배타성, 연속성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2절을 살펴보면 악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습니다. 6장 12절을 몇 구절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의

행위가 부패하였음이라.” 그리고 8장 21절은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고 말씀합니다. 즉, 악은 선천적입니다. 그것은 배운 것이 아닙니다. 타락 이후에 인간으로서 인간의 특징이 되는 어떤 것. 그에게는 최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러므로 홍수의 원인을 말할 때 그것은 인간의 사악함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고, 심판은 홍수의 형태로 임했습니다.

4.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 - 창 6:1-4

그런데 창세기 6장과 그 구절들, 특히 홍수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5절과 5절부터 7절까지 앞에는 해석상 많은 논의를 불러일으키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있는 보스(Vos)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6:1-4. 나는 창세기 6장 1-4절에 있는 내용이 5절에 이르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악함의 종류에 대한 예시 또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6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신임이요 그의 날은 120년이니라. ’ 그리고 그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에게 자녀를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들이 되고 노인들에게 명성이 있더라. ” 물론 여기서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의 관계에는 어떤 사악함이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1. 신화적 접근 다양한 관점이 개발되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신화적 사상으로, 특히 창세기에는 성서 외의 자료를 단순하게 접목한 신화적 전설적 자료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하는 비판학자들의 특징이다. 그 생각은 신들이 지상 여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그들과 결혼하여 고대의 거대한 영웅 종족, 큰 힘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단지 신화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나는 구약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한 가능한 이해로서 그것을 배제한다고 생각합니다.

비. 더 엔젤스 뷰

두 번째 견해는 훨씬 더 일반적이며, 특히 초대 교회에서 일반적이며 오늘날 완전히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 영적인 존재에 대한 언급이며 그들이 여성과 육체적 관계를 맺었다는 생각입니다. 이 연합의 자손은 4절에 묘사된 용사들, 네팔림 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최선의 견해라고 확신하지는 않으며, 다소 심각한 반대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3절에서 형벌이 천사들에게가 아니라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지위를 침해하고 여자와 관계를 맺은 것이 천사들이라면, 심판은 남자가 아니라 천사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주님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의 날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니 홍수 전 120년밖에 안 되리라 ” 고 하시고 심판이 *그들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 둘째, 천사는 여기서 직접적으로나 더 넓은 맥락에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라면 어떻게 갑자기 천사에 대한 언급을 갖게 되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셋째, 나는 이것을 윌리엄 헨리 그린(William Henry Green)에게서 따왔습니다. 윌리엄 헨리 그린(William Henry Green)은 20세기 초 프린스턴 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아까 그 사람을 언급한 것 같아요. 그는 벨하우젠의 이론이 처음으로 심오하다고 여겨지고 추종되던 시절 벨하우젠과 교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훌륭한 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사가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개념은 히브리 사상에 전혀 낯선 것” 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입증할 근거가 성경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그는 하늘에서는 우리가 천사들과 같아서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가는 일도 하지 않는다는 예수의 말씀에 주목합니다. 천사는 성경에서 말하는 성적인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는 견해인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견해를 채택한 사람들은 대개

유다서 6절에 호소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6절에서 다음을 읽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느니라. 좋은 날이야.” 그 개념은 유다서 6장이 이 구절과 연결되어 있고 유다서 6에서 천사들이 자신의 처소를 떠난다는 언급은 천사들이 하늘을 떠나 땅으로 와서 이 관계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서 6장의 맥락과 관련하여 그들의 첫 번째 지체와 자신의 거처를 떠나는 것이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활동의 영역이라는 생각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간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작전권의 영역이 그들에게 위임되었고, 그들은 사탄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그를 따랐을 때 그 밖으로 나가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서 6장의 구절이 실제로 이 구절과 관련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천사의 관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호소하는 본문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씨. 셋 족속 의 견해

아마도 오늘날 여러분이 접하는 가장 일반적인 견해인 세 번째 견해는 보스와 다른 사람들도 옹호한 견해입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셋 족속 과 가인 족속과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 그리고 이 두 줄은

창세기에서 이전에 대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업 시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불경건과 사악함이 특징인 가인 계열; 경건함으로 셋 족속의 계열. 그렇다면 죄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의 혼합 결혼입니다. 그래서 셋 족속은 이 경건한 족속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노아의 집을 제외하고는 예외가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불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휩쓸려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두 계통이 혼합되면서 주도권이 경건한 계통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 셋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웠느니라” [가인 계열] 그들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가인 여인의 매력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계열에서 주도권을 얻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관점에도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가장 큰 초기 문제는 이것이 히브리어 용어를 강요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인간/인류를 뜻하는 하담(*ha'adam*)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는 *하담*, 즉 남자를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이해하도록 강요합니다. 보세요, 1절에서 읽어 보세요. *하담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였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느니라.” 글썄요, 거기에 있는 남자는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일반적으로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주 분명해 보입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 의 딸들

하담의 딸들을 보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견해에 따르면 *하담*은 구체적으로 가인 계열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 내의 단 하나의 클래스. 즉, 이어지는 두 구절에서 *하담*을 두 가지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당신이 진술의 흐름에서 그렇게 할 정당성이 있는지 정말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의 딸들을 보았느니라. 그들은 아름다워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두 구절의 딸들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6장 1절에는 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면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남자들은 번성했고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았느니라.” 둘이 같은 딸 아니야? 그래서 제 생각엔 이런 관점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 해석으로 제기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왜 이러한 결혼, 즉 경건한 혈통과 불경건한 혈통의 혼합 결혼의 자손이 되어야 하며, 그 자손이 왜 네팔림 과 기 보림 이어야 하는가입니다. 4절에 나오는 거인들을 히브리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거인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는 *네팔림* 입니다. 그리고 그 구절의 마지막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용사가 되었습니다.” 즉 *기보림*은 유명한 사람, 즉 이름을 가진 사람, 문자 그대로 “이름을 가진 사람” 이었습니다.

왜 혼혈의 자녀가 이런 개인이 되어야 합니까? 네 번째 관점을 살펴볼 때 이 용어에 대해 더 자세히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성한 왕권의 관점입니다.

디. 킹십 뷰

당신의 참고문헌에도 2개의 기사가 있습니다. 귀하의 참고문헌 10 페이지 3분의 2 정도 아래에는 *Westminster Theological Journal* 에 실린 *Kline*의 기사인 "창세기 6:1-4의 신성한 왕권"과 LeRoy Burney의 "창세기 6장에 대한 주석적 연구: 1-4", 1970년 *복음주의 신학 협회 저널*. 이 견해의 기본 논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들의 아들들"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복수형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을 가리키는지 히브리의 신을 가리키는지 여부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들의 아들들"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으며, 신성한 왕권에 대한 고대 근동의 개념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언급되는 것은 홍수 이전의 왕들입니다. 신들의 아들들은 왕이었던 인간이었지만 여기서는 신들의 아들들로 지정되었습니다. 사람의 딸은 단순히 일반 사람의 딸일 뿐이며 죄는 일부다처제입니다.

이제 이를 기본 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Burney의 기사 47페이지에서 그는 왕을 다양한 신의 아들로 언급하는 널리 퍼진 관습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집트에서 왕이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불렸다고 말했습니다. 수 메로 -아카디아 왕은 여신의 후손이자 신들 중 하나로 여겨졌으며, 엄밀히 말하면 왕을 신들의 아들로 지칭했다. 히타이트 왕은 날씨 신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칭호는 “신의 어머니”였습니다. 북서 셈어에서는 일반적으로 왕을 ‘신의 아들’이라고 직접 불렀다. 신은 왕의 아버지라고 불렀다. 본문에서는 신들을 왕의 아버지로 지칭하며, 왕은 바알의 아들, 즉 신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셈족의 용례에 기초하여, 신의 아들들, 또는 신들의 아들들인 *베네 하엘로힘* 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고대 근동 관습의 증거에 기초하여 왕조의 통치자들을 지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남자의 딸은 일반적으로 딸일뿐입니다. 그 죄는 일부다처제였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았느니라.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of” 라는 전치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전치사는 *min* 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 *중에서* 아내를 삼았습니다.” *min*은 여기에서 “~의” 로 번역되었습니다. 이제 일반적인 해석은 *min* 또는 “of”를 부분적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영적인 지위나 그 밖의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자신들이 선택한 것을 취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가져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선 견해인 혼혼론의 사상일 것이다.

이 신성한 왕권 관점에서 *최소 또는 “~의”* 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모든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원하는 만큼 많은 아내를 취했습니다. 부분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선택한 만큼”이라는 설명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문맥상 그것은 어느 정도 근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23,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복수형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라멕에게 아내가 한 명 이상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6장 1절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 일부다처제는 인구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좀 더 먼 곳이에요. 그러나 조금 더 나아가, 이것이 일부다처제의 죄에 대한 설명이라면, 문제는 신성한 왕들이 원하는 만큼 많은 아내를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4절에 이 용어의 사용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 *네프림* , *기보림* , 이 이름을 가진 사람들 곧 이 연합의 자손은 이 용사들이라.” 그들은 권력을 갖고 그렇게 인정받은 왕들의 가문에 속한 왕자들이었습니다. 거인으로 번역된 *네프림* 이라는 용어는 번역하기 매우 어려운 용어입니다 . 어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RK Harrison과 Bruce Waltke가 편집한 *구약의 신학 단어장* (이 두 권 에 익숙할지 모르겠습니다) 에서 이 용어 를 찾아보면 히브리어 단어를 나열한 다음 의미와 내용을

논의하는 기사를 제공합니다. 사용. 자, 그것은 그 의미를 고정하는 한 매우 파악하기 어려운 용어입니다. 거대한 키가 의미의 순환의 일부일지도 모르지만, 가장 강한 의미는 아마도 전사 유형의 사람에 대한 아이디어 일 것입니다. 못 박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IV는 번역조차 하지 않습니다. 좋아요, 이것이 바로 창세기 6:1-4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고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신성한 왕권 이해를 위한 기본 개념입니다.

폭력 요인

그래서 이제 신화적인 관점은 실제로 실행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 가지 중에서 죄는 천사와 여자 사이의 성관계, 또는 경건한 사람과 불경건한 사람 사이의 혼합 결혼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는 주변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한 폭력적인 전사 계급의 왕자들을 배출한 것은 소위 신성한 왕들, 즉 이러한 도시 국가의 지도자들의 일부다처제 관계입니다. 12절과 13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땅을 보신즉 보라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육체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거기에는 강포가 땅에 가득하다. 그 폭력은 아마도 *네팔림*, *기보림*이라는 이름의 사람들과 관련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글은 어려운 글이다. 나는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이러한 가능한 이해 중

올바른 것이 단 하나만 있다고 말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하며, 둘 중 하나를 강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자신의 성향은 마지막 견해인 신성한 왕권 견해를 향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이 인간 여성과의 성적 관계에 관심이 있거나 능력이 있었다고 말하는 것은 큰 다음 단계입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한 사례일 것입니다. 있을 수있다. 나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며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5. 홍수의 역사성

자, 홍수 때로 가보겠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4번입니다. 우리는 앞서 그것을 논의했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홍수의 시기를 확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족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5장이 아닌 족보를 사용해야 하지만 창세기 11장의 족보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왕국 시대에 실제로 시작하는 고정된 지점에서 연대순으로 되돌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당시부터 다시, 출애굽 이후부터 다시 족장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작업해야 하는데 대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창세기 11장을

아브람부터 노아까지 가져가서 창세기 11장의 족보를 사용하여 여기서 홍수가 이런 저런 날짜에 있었다고 말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논의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치를 더하면 홍수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시간은 29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야 할 일이 너무 많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데이터 중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공백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성경적 족보의 특징이므로 날짜를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관찰은. 5. “홍수의 역사성” 이다.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의 기원과 성격에 관한 전체적인 질문이다. 나는 성경의 기록이 실제로 일어난 일, 즉 역사적 사건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는 것으로 이해되도록 의도되었다는 점에 의문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홍수가 일어난 어떤 일의 의미로 언급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은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앞으로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임함은 이러하니라” 그러한 비교나 비유는 확실히 홍수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었다고 추정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다스리며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서 “하나님이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여덟째 사람 곧 의를 전파하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 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 느니라 ” 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도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하였느니라” 라는 암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것을 실제로 일어난 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바빌로니아 홍수 이야기 그 역사성에 반하여 많은 사람들이 다른 민족, 특히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관련 이야기를 활용해 왔으며, 성경 이야기와 성경 외 이야기의 유사성으로 인해 성경 이야기는 단지 변형된 이야기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야기의 버전. 나는 여러분이 36페이지에 있는 Finegan의 진술을 기억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Finegan 은 바빌론 홍수 이야기를 논의한 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다신교적 요소가 정화되어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남은 바빌론의 고대 홍수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가지 출처가 창세기 6장 5절부터 9장 17절까지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빌로니아 이야기의 각색일 뿐이라고 매우 사실적으로 말했습니다. 바빌로니아 이야기는 특히 심각한 강의 홍수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현재 우리가 발견하는

방식으로 장식되고 기억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점을 취한다면 확실히 성경 이야기의 역사성을 위태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점은 성경의 홍수 이야기와 바벨론의 홍수 이야기를 비교할 때 놀라운 점은 유사점이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두 이야기의 골격은 거의 동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이 8가지 사항을 통해 그것을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성경과 바빌로니아 이야기 모두에서 대홍수가 일어나 거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대홍수가 거의 모든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다” 입니다. 둘째, 배를 타고 몇몇 사람과 몇몇 동물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성경 이야기에서 발견하고 바빌로니아 이야기에서도 발견합니다. 셋째, 성경 이야기와 바벨론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다가올 위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미리 알게 되었습니다. 넷째, 하나님의 지시는 방주나 배를 지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이 방주나 배는 두 가지 기록 모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섯째, 홍수가 그치고 배는 산에 정박했습니다. 일곱째, 배에 탄 사람들은 새 몇 마리를 풀어 놓아 외부 상태를 확인했다. 그것은 그것을 결정하는 다소 놀라운 방법이지만 두 계정 모두에서 수행됩니다. 여덟째, 배에서 풀려난 후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야기의 기본 요소인 해당 요소를 선택하면 두 계정 모두에서 해당 기본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변형이 있습니다. 구조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몇 분 후에 설명하겠지만, 동일한 구조와 변형 및 세부 사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도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노아에 해당하는 영웅은 지우스드라(Ziusudra) 라는 사람인 사마리아 버전이 있습니다 . Finegan이 Noah에 해당하는 영웅이 Utnapishtim이라는 길가메시 서사시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아트라하시스가 이야기의 영웅인 아트라하시스 서사시라고 불리는 아카디아 바빌로니아 유형의 이야기의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메소포타미아 홍수 이야기에는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반복한 이 구조는 주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따온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그것들은 모두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종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자료와 성경 외 자료에서 매우 유사하며, 어떤 종류의 관계가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서의 홍수 이야기와 바빌로니아 홍수 이야기의 차이점 그 질문을 보기 전에 구조적 관계는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입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방금 언급되었습니다. 길가메시 서사시의 큐브,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부터 시작합시다. 방주부터 시작해 보세요. 유사점은 두 이야기의 영웅이 자신을 구원할 거대한 배를 만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두 기록 모두 방수를 위해 역청 재료를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크기와 구조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사람은 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에 관한 한,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우트나피슈티는 자신의 보트에 6개의 갑판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닥 공간을 9개 구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또한 문과 적어도 하나의 창문이 제공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성경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노아의 방주는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방주를 만들 때에는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마무리하고 방주의 문을 안에 내고 이층과 삼층으로 하라. 만들어라.” 그래서 하나에는 6개의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하나에는 3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을 보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즉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5절입니다. 규빗이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거리에 해당한다면 약 18인치이며, 일반적으로 계산되는 방식으로 방주는 길이가 약 450피트, 너비가 75피트, 높이가 45피트입니다. 축구장보다 긴 적당한 크기의 보트입니다. 폭 75피트, 높이 45피트. 배수량 4

3,000톤. 현대 선박 건조가 방주에서 볼 수 있는 길이, 너비, 높이와 동일한 비율을 따른다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를 Gilgamesh Epic에 나오는 Utnapishtim의 배와 비교해보세요. 그의 배는 여기에 언급된 대로 한 변이 120큐빗인 정육면체였습니다. 메소포타미아 홍수에 대한 바로시스(Barosis) 기록에 따르면 그의 배는 길이가 3,000피트, 폭이 1,200피트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러한 천문학적인 종류의 숫자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 요점은 당신이 눈에 띄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서 그는 이 배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그 유사점을 둘러싼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 내려가는 모든 지점에서 동일한 종류의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유사성을 지적하지만 세부적으로는 많은 측면이 다릅니다.

시간이 다 됐나 봐요. 다음 시간 초에 이에 대한 몇 가지 예시를 더 보여드리고 그 유사점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유사점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Kristen Beebe의 대본

거친 편집: Ted Hildebrandt

Rachel Ashley의 최종 편집

다시 해설한 사람